

 국토교통부		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<b style="font-size: 1.2em;">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
		배포일시	2018. 1. 26.(금) 총 4매(본문3)	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박건수, 사무관 한기준, 주무관 김학년 • ☎ (044) 201-4600, 4617, 4607	
	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	담당자	• 과장 박준성, 계장 손은주, 수사관 유상훈 • ☎ (042) 615-5872, 5873, 5875	
보도일시		2018년 1월 29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28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철도안전 위협하는 열차 내 범죄 “무관용 원칙” 적용

`17년 철도치안 구속률 6.7%↑…직무집행 방해·선로 무단통행·성범죄 단속 주력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소속 철도경찰대에서 △철도종사자에 대한 위해행위 단속, △선로 등 철도시설 무단출입 단속, △철도안전사고 조사 등 2017년도 주요 철도치안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.

○ 먼저, 철도승무원 등 철도종사자를 폭행·협박해 철도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총 120건을 검거하여 16년 대비 36.4%*가 증가했다.

* (검찰청 송치 건수) '16(88건) → '17(120건)

- 특히 철도안전에 위협을 주는 열차 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구속수사 원칙에 따라 구속률*이 16년 대비 6.7% 상승했다.

* 열차 내 안전범죄 구속률: 16(6건, 8%) → 17(11건, 14.7%)

○ 또한, 열차의 정상운행을 방해하고 사상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선로 무단통행 및 철도시설의 무단침입 행위에 대해서는 총 8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.

- 관광지 등에서 정당한 출입 허가를 받지 않고 선로 등에 무단으로

들어가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.

* (과태료 부과) 총84건, 21백만 원, 1회 위반(25만), 2회(50만 원), 3회 이상(100만 원)

○ 또한, 철도 차량기지 등 철도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 낙서를 한 **그라피티 사건도 '17년도에 4건이 발생해** 계속 수사 중이다.

○ 철도종사자의 인적 과실 등에 의한 **열차 충돌사고 및 부주의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** 등에 대하여 총 21건을 단속했다.

□ 2017년 철도치안 활동을 전년도와 비교 분석 해보면 철도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게 **위해행위를 한 직무집행방해 사건과 성범죄 단속이 각각 43.7% 및 34.7% 증가한 것으로** 나타났다.

* (직무집행방해) '16(87건) → '17(125건), (성폭력범죄) '16(583건) → '17(785건)

□ 위와 같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철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**위해행위, 철도선로 무단침입, 성범죄** 등에 대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.

○ '17년 철도교통사상사고로 인한 사망자 51명 중 자살이 33명으로 **64.7%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도**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* 철도교통사상사고: 열차 운행으로 여객·공중·직원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고

□ 이에,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2018년 철도치안 활동의 중점목표를 **'국토교통 안전강화 원년의 해'** 취지에 맞게 철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
○ 먼저, 철도여객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**철도경찰의 열차 내**

방법순찰을 높여 범죄예방 등 국민체감 치안활동을 강화하고,

○ 철도선로 등에 무단출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예방 및 단속활동을 병행하여 사고로 인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주력하기로 했다.

○ 또한,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(불법촬영 등)에 대해 범죄 예방을 위하여 몰래카메라 탐지 활동 등 취약개소를 사전 점검하고,

-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성범죄 대응요령 및 신고 방법 설명 등 철도 지역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홍보활동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철도경찰 전문수사관을 투입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.

○ 특히 열차사고의 대부분이 종사자의 인적과실에 의한 것으로 이에 기본안전수칙 위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경각심을 높여 철도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한다고 강조했다.

□ 아울러, 국토교통부는 세계 이목이 집중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치안 보안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철도선로 무단 출입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철도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.

○ 또한 철도지역 내에서 범죄 및 사건 발생 시 철도범죄 신고전화 '1588-7722' 또는 '철도범죄신고 모바일 앱'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한기준 사무관(☎ 044-201-461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

2017년 국가철도 구간 철도 치안활동 현황

□ 형사범 · 행정범 단속현황

○ 형사범

연도	구분 범종	발 생						검 거		
		계	강·절도	상해 /폭행	성폭력	철도안전법위반		기타 범죄*	건수	검거 (%)
						직무집행 방해	기타			
2017년		1,951	303	217	785	125	15	506	1,893	97
2016년		1,700	329	217	583	87	18	466	1,619	95
증감		251	△26	0	202	38	△3	40	274	2

* 기타범죄 : 기차교통방해, 사기, 횡령 등

○ 행정범

연도	구분 범종	행정범(범칙금)					과태료				
		계	즉심	통고 처분	훈방	인계	계	과태료	훈방	퇴거	인계
2017년		20,247	41	3,263	16,926	17	3,393	1,645	1,680	63	5
2016년		26,768	22	4,264	22,453	29	8,450	3,036	5,227	176	11
증감		△6,521	19	△1,001	△5,527	△12	△5,057	△1,391	△3,547	△113	△6

□ 안전사고 및 선로 무단침입 단속현황

연도	선로별 처벌	계	경부 고속선	경부선	경원선	경의선	중앙선	동해 남부선	호남선	영동선	기타
	과태료	46		29	4			3	1	1	8
'16년	형사범	31	6	8	2	3	1		3		8
	과태료	136		39	10	2	10	9		19	47
'17년	형사범	21		4	3	2	1		1		10
	과태료	84		23	6	1	3	2	5	3	41

□ 철도시설물 무단침입 현황

죄명	연도	발생	검거
재물손괴 건조물침입죄	'15년	25	9
	'16년	3	
	'17년	4	